

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복지욕구와 정책과제

-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가족은 한부모가구, 조손가구 등 불안정한 형태가 많음. 가족내에서는 방임과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수급아동에 비해 높고, 학교생활에서 적응력이 낮고, 방과후에는 학습보다는 집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

- 비수급빈곤층 아동을 위해서 교육을 통한 빈곤세습을 단절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, 방과후 보호 활성화로 아동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도록 함. 연령차별화된 복지전략과 함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요구됨

1. 비수급빈곤층의 개념 및 규모

□ 비수급빈곤층의 개념

○ 비수급빈곤층이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을 초과하였거나, 부양의무자기준(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존재)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임

○ 비수급빈곤층을 소득계층에 따라 5개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음

※ 비수급1, 비수급2, 비수급3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%미만임에도 불구하고,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수급에서 탈락된 계층을 의미하고, 비수급 4,5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%이상 증임

○ 아동 가구에서 수급층은 절대빈곤아동가구를 의미하며, 비수급1+비수급2는 '비수급빈곤아동가구', 비수급기타는 '비빈곤아동가구' 를 의미함

□ 비수급빈곤층의 규모

○ 2006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이나 부양의무자 및 재산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은 53만가구(3.26%) 103만명(2.13%)으로 추계됨

2.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특성

가. 가족특성

□ 가구주 결혼상태

○ 비수급빈곤 가구의 경우 유배우의 비율은 49%에 불과하고, 사별과 이혼 등 가족해체의 경우는 44%나 되고 있음

- 수급가구의 경우도 유배우의 비율이 30.0%에 불과한 수준이었고, 이혼과 사별은 60% 가량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
- 비수급기타 가구(비빈곤 가구)는 유배우의 비율이 70% 이상으로 높은 반면, 이혼 및 사별 등의 비율은 타 계층에 비하여 낮았음

□ 가구유형

- 비수급1+비수급2 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각 30% 가량임
- 수급가구의 경우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40.5%로 많았고, 조손가구의 비율도 14.7%로 파악됨
- 비수급기타 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과반수이었으며, 3세대 가구의 비율이 한부모가구의 비율보다 높음
- 이와 같이 저소득층의 경우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, 비정형가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

나. 학교생활과 방과후 활동

□ 학교생활 적응

- 수급아동이 비수급빈곤아동 및 비빈곤아동에 비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비수급빈곤 아동은 평균적으로 2회 가까이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, 초등학생이 중·고등학생에 비해 따돌림·폭력을 2배 이상 더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됨
 - 따돌림·폭력을 빈번히 경험하는 아동은 그만큼 학교생활 적응도, 학업성취도, 희망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

[표 1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집단따돌림·학교폭력 경험 횟수 평균

| 학년 | 수급 | 비수급1+비수급2 | 비수급기타 | 전체 F=31.31*** |
|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초저생 | 2.9 | 2.4 | 2.2 | 2.3 |
| 초고생 | 2.9 | 2.7 | 1.9 | 2.4 |
| 중학생 | 1.2 | 1.1 | 1.0 | 1.1 |
| 고등학생 | 1.1 | 0.8 | 0.7 | 0.9 |
| 전체 | 1.8 | 1.8 | 1.6 | 1.7 |
| 사례수 | 412 | 698 | 1,003 | 2,113 |

***p<0.001 (4점 척도: 전혀 없음 0, '1번' 1, '2-3' 2.5, '4번 이상' 4)

□ 방과후 활동

- 방과후 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기타층은 학원이나 과외가 38.1%로 가장 높았으나, 비수급 및 수급층은 집에서 보내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
- 수급층과 비수급1+2층은 보호자가 없이 지낸 경우도 많아, 아동방임의 소지가 높음

[표 2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방과후 활동유형

(단위: %,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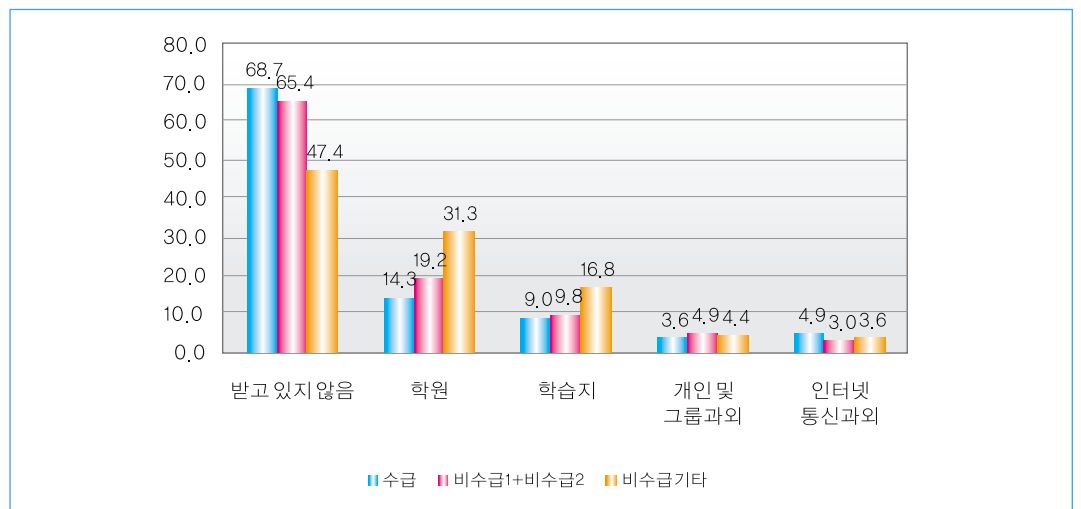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수급 | 비수급1+비수급2 | 비수급기타 | 전체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학원이나 과외 | 19.2 | 20.0 | 38.1 | 28.5 |
| 집안일을 함 | 6.3 | 2.2 | 2.6 | 3.2 |
| 과제 등 집에서 보냄(보호자유) | 26.9 | 26.9 | 21.5 | 24.3 |
| 과제 등 집에서 보냄(보호자무) | 14.1 | 14.0 | 9.6 | 11.9 |
| 방과후 공부방 참여 | 6.8 | 12.5 | 10.1 | 10.2 |
|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참여 | 2.7 | 1.0 | 1.3 | 1.5 |
| 운동, 취미활동 | 3.2 | 2.6 | 2.9 | 2.8 |
| 학교내외 동아리활동 | 2.2 | 0.9 | 0.7 | 1.0 |
| 친구와 외출 | 14.6 | 16.0 | 11.1 | 13.4 |
| 아르바이트 | 0.7 | 0.3 | 0.3 | 0.4 |
| 교내보충수업 | 0.5 | 0.3 | 0.1 | 0.2 |
| 기타 | 2.9 | 3.3 | 1.8 | 2.5 |
| 계 (사례수) | 100.0 (412) | 100.0 (694) | 100.0 (1,002) | 100.0 (2,108) |

주: $\chi^2=129.936^{***}$ ($p<.001$)

자료: 김미숙·박능후·노대명·김혜련·김유경·배화옥·이주연 외 (2009), 『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』, 보건복지가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[그림 1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사교육실태

(단위: %)



$\chi^2=104.449^{***}$ ($p<.001$)

자료: 김미숙·박능후·노대명·김혜련·김유경·배화옥·이주연 외 (2009), 『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』, 보건복지가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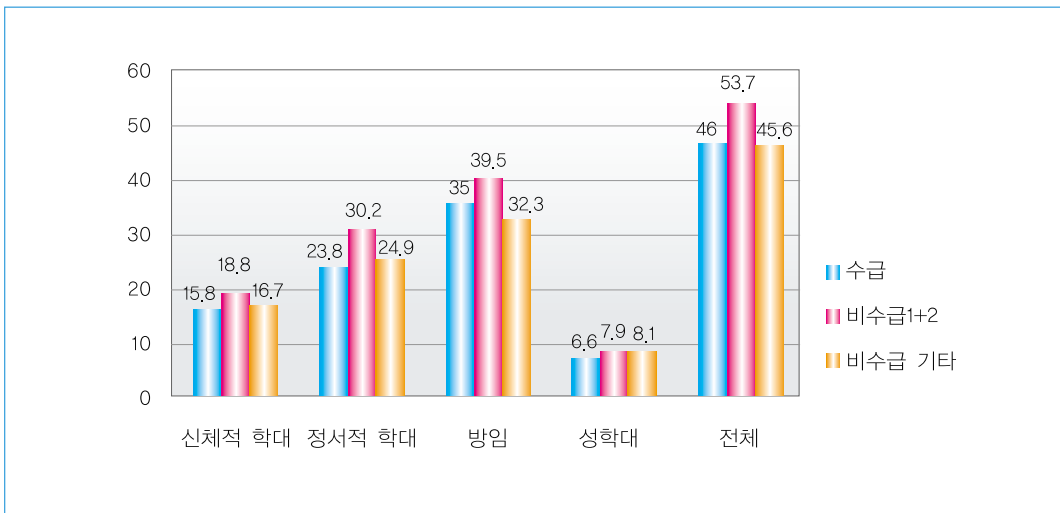
다. 가정폭력

□ 학대 및 방임

- 지난 1년간 가족내 학대 및 방임을 조사한 결과 비수급1+2층이 53.7%로 수급층 46.0%에 비해 7.7%p 높게 나타났음
- 아동학대유형별로는 방임의 경우 비수급1+2층이 39.5%로 수급층 35.0%보다 4.5%p 높게 나타났으며, 정서적 학대도 비수급1+2층은 30.2%로 수급층 23.8%보다 6.4%p 높게 나타났음

[그림 2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학대 및 방임실태

(단위: %)



주: 방임은 4개, 정서적 학대 3개, 신체적 학대 3개, 성학대 2개 항목에 응답한 비율

자료: 김미숙·박능후·노대명·김혜련·김유경·배화옥·이주연 외 (2009), 『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』, 보건복지가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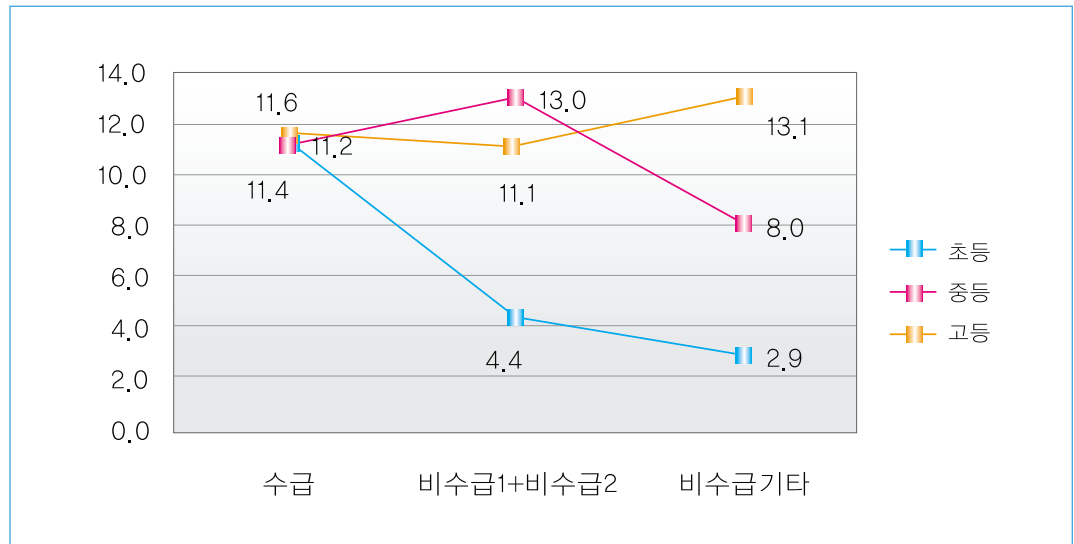
라. 비행실태

□ 무단결석

- 비수급 1+비수급2층의 무단결석률은 학령별로는 중등이 13.0%로 가장 높았고, 고등(11.1%), 초등(4.4%)의 순임. 즉 중학생의 비행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음
- 수급아동에 비해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무단결석률이 낮지 않아, 비행의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음. 고등학생의 경우는 비수급기타의 무단결석률도 13.1%나 되어 학교 부적응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보임

[그림 3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무단결석 실태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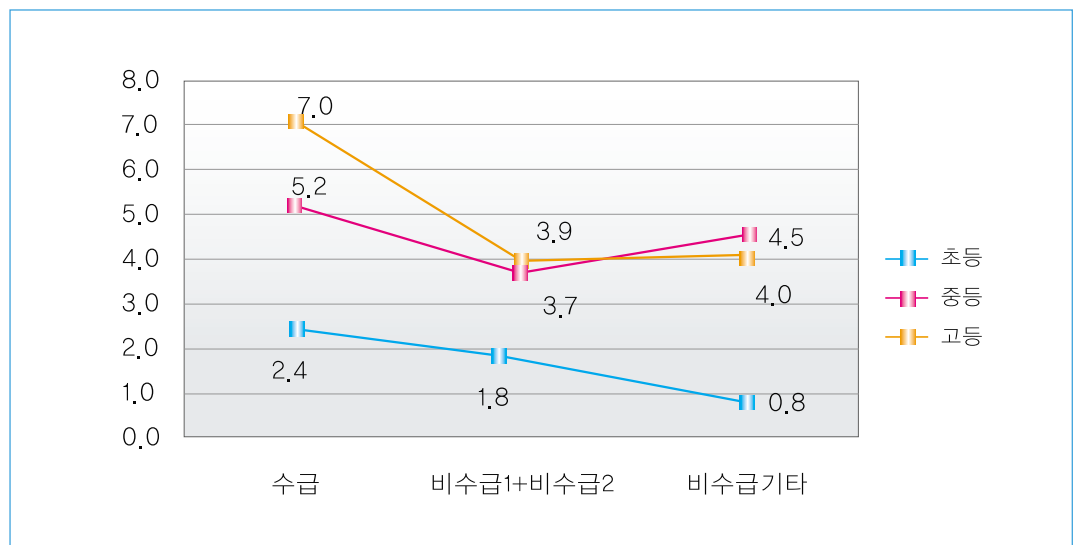
자료: 김미숙 · 박능후 · 노대명 · 김혜련 · 김유경 · 배화옥 · 이주연 외 (2009), "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", 보건복지가족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□ 폭력경험

- 비수급1+비수급2층의 폭력경험률은 수급층 아동보다는 높지 않았고, 비수급기타보다도 높지 않았음.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폭력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어,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함을 시사함
- 특히 수급 고등학생의 경우는 폭력경험률이 7.0%로 가장 높아 비행청소년화의 우려를 낳고 있음

[그림 4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폭력실태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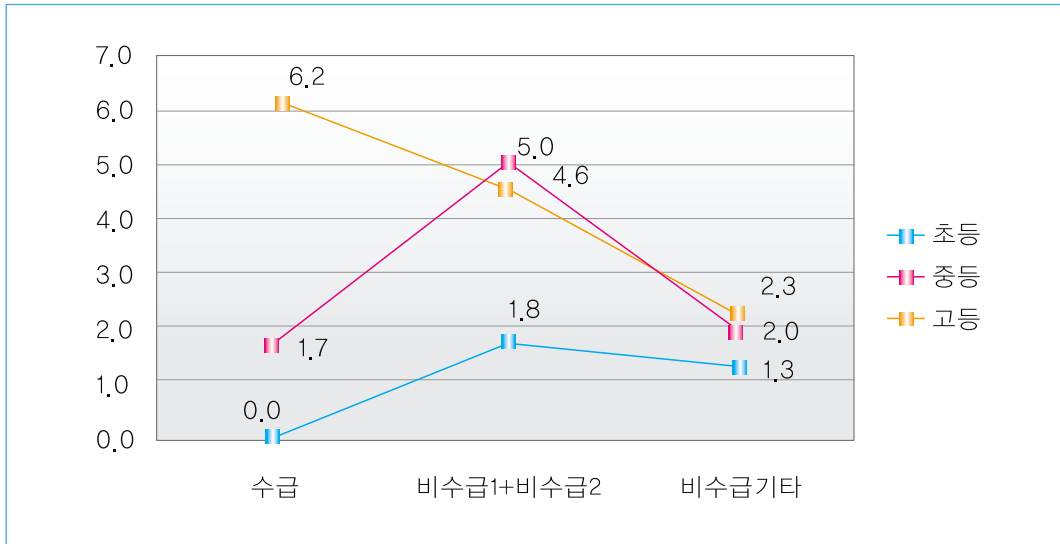
자료: 김미숙 · 박능후 · 노대명 · 김혜련 · 김유경 · 배화옥 · 이주연 외 (2009), "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", 보건복지가족부 ·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□ 가출

- 가출율은 비수급1+비수급2층 중에서는 중등의 경우가 50%로 가장 높았음. 전체적으로 수급 고등학생의 가출률이 6.2%로 가장 높아, 폭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행에 있어서 고 위험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
- 비수급기타의 경우는 가출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, 학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지도 않은 2%대를 보이고 있음
- 이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층 및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경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행할 확률도 높아짐을 알 수 있음. 즉, 빈곤 상황이 아동의 비행여부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함
-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에 대한 지도와 보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함

[그림 5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가출실태

(단위: %)



자료: 김미숙·박능후·노대명·김혜련·김유경·배화옥·이주연 외 (2009), "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", 보건복지가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3. 복지욕구

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

- 비수급1+2층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 중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1위는 초저생 및 초고생은 '학원비지원' 이 각 71.7%, 75.0%이었고,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'학비지원' 이 각 83.9%, 89.5%이었음

[표 3] 비수급빈곤층 아동의 복지욕구

(단위: %)

| 학년 | 1위 | 2위 | 3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초저생 | 학원비지원(71.7%) | 학비지원(66.8%) | 여가운동지원(62.5%) |
| 초고생 | 학원비지원(75.0%) | 학비지원(73.0%) | 여가운동지원(65.5%) |
| 중학생 | 학비지원(83.9%) | 학원비지원(75.8%) | 여가운동지원(70.2%) |
| 고등학생 | 학비지원(89.5%) | 학원비지원(78.4%) | 여가운동지원(62.7%) |

자료: 김미숙·박능후·노대명·김혜련·김유경·배화옥·이주연 외 (2009), 「능동적 복지 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: 비수급빈곤층을 중심으로」, 보건복지가족부·한국보건사회연구원

4. 정책과제

아동방임 및 학대 예방

- 비수급빈곤 아동의 방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. 학교를 마친 후에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되도록 안전시스템을 강화함
- 학대 및 방임 예방 및 피해아동 치료를 위해서는 상담서비스 확충,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의 활성화 및 피해대아동 사례관리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및 포괄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함

학비지원 강화

- 비수급 1+2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미흡하므로,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학비지원을 강화하도록 함

연령 차별화된 복지전략 수립

- 고학년인 고등학생의 경우는 진로지도, 아르바이트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,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활동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
- 중학생의 경우는 비행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선도와 지도가 필요함

학교적응 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

-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일대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여 교사 파견 사업을 개선하도록 함. 대학교육 이상의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대상 '가정방문교사제도' 를 도입을 고려함

- 어린이 박물관, 어린이 도서관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건립하도록 함. 하고, 비용에 대해서도 무료화를 추진함
- 공공시설 건립시 아동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(50%) 하도록 함.
-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쉽고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함

□ 복지서비스에 홍보 전략 개발

- 아동청소년이 서비스를 쉽고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함

김미숙(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) 문의 (02-380-8144)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/public_01_01.jsp